

문화 생산계층로서의 1970년대 한국 청년문화에 대한 고찰

김지선*

1. 서론

1) 연구목적

문화 생산은 계속해서 이어져 왔으며 자본주의에 의해 문화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명확히 구분되는 현재의 시점에서 대중은 문화를 소비하는 소비계층만이 아닌 일정한 문화적 흐름을 주도하고 양산해 내는 생산계층으로서 일정 부분 문화 생산에 참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연구는 문화가 생산된다는 것에 대한 의미 찾기와 한국의 대중문화에서 문화주체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되었다. 현재 대중문화의 소비주체를 꼽으라면 10대와 20대 계층의 젊은 청소년 계층과 대학생 계층을 주 대상으로 이야기할 것이다. 이 논문은 청년이 언제부터 문화의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하였는지를 역사적 맥락에서 검토하고 청년이 문화생산계층으로 나타나게 된 과정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청년문화의 특성을 도출하고 현재 대중문화와 연결 지을 수 있는 지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청년문화의 등장은 대중문화의 흐름 속에서 성인 계층이 아닌 학생이 문화의 중심에 서서 새로운 주체로 자발적인 문화를 형성하고 일정한 문화적 조류를 형성한 최초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청년문화 속 청년은 단순한 문화 수용자가 아닌 문화 생산자적인 특성을 나타내면서 처음으로 대학생이 문화를 주도하는 계층으로 등장시켰다. 또한 문화적인 측면에서 기성세대와는 대치되는 청년이라는 계층을 처음으로 만들어냈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처럼 청년을 중심으로 한 특정한 문화 형성은 이후 신세대 문화, 아이돌 문화로 대변되는 청소년 문화와 같은 하위문화 형성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문화연구의 목적은 맑스, 엥겔스가 포이에르바하에 대한 마지막 테제에서 말했듯이 텍스트를 해석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꾸고 실천하는 데 있다(이동연, 2012 : 300-301). 이 연구는 청년문화에 대한 고찰이 주 내용을 이루고 있으나 목적은 그것을 살펴보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문화연구의 목적과 연관되는 맥락에서 청년문화의 긍정적인 양상의 도출은 앞으로 한국 대중문화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발견하는 데에도 기여하며 과도기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특정한 문화를 형성한 문화생산 계층으로서의 청년에

*한국의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한국학과

의미를 두고 1970년대 청년문화를 고찰하고자 한다. 청년문화는 이후 등장한 하위문화를 양산해내는 데에 기폭제로써의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으며 과거와의 연결을 통해 현재 문화의 흐름을 읽는 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대상

여기에서는 청년문화의 수용양상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대중문화의 한 형태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변화했는지를 살펴본다. 이것은 현재 10대, 20대가 대중문화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과 연결 지어 볼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1970년대 ‘청년’이라는 이름과 함께 등장하게 된 청년문화가 본 연구의 대상이다. 청년문화가 서구의 모방이라는 측면은 청년문화의 등장배경에서 주요한 요소로 작용하지만 이러한 양상에 대한 견해는 본고에서 차치하고 청년문화가 한국사회에서 새로운 문화를 생성하는 데 역할을 했다는 긍정론적인 관점에서 청년문화를 살펴보려고 한다.

청년문화가 이루어지던 시기인 1970년대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대학문화가 형성되었다. 대학에서의 정치적 요구나 운동권문화의 형성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1970년대 청년문화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문화가 어떻게 생성되었으며 그에 대한 문화적 의의를 찾는 논의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청년문화의 형성과 수용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청년문화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요소들이 현재의 문화 생산과 어떠한 연관성을 갖는지 그 의미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처럼 청년문화를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청년에 대한 용어정의의 문제가 발생한다. 본고에서도 기존의 관련된 논의를 토대로 ‘청년’의 범위를 대학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한 지식인 청년층으로 그 대상으로 설정하고자 한다.¹

김창남(2003)은 신세대문화의 저항적 이미지를 수렴하면서 새로운 문화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문화세력이 필요함을 역설하며 청년문화를 그 대안으로 이야기한다. 하지만 여기에서 다루어질 청년문화는 대안적 문화세력이라는 측면보다는 한국의 대중문화가 청년이라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특정한 문화조류를 형성했다는 점에 좀 더 주목하여 이러한 부분을 중심으로 청년문화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2. 청년문화의 형성배경 - 1970년대 한국사회²

청년문화의 형성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1970년대 한국사회의 변화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변화는 새로운

¹ 이혜림(2005)은 청년을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의 기간에 대학을 다닌 대학생집단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도 이와 같은 정의를 따르고자 한다.

² 1970년대의 한국사회 변화 양상은 이혜림(2002), 김창남(1998)의 논의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필자의 견해를 첨가하였다.

문화를 양산해 내며 일정 부분 영향을 준다.

1970년대 사회는 정치적으로는 박정희에 의한 독재정권의 형성, 경제적으로는 경제발전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 사회적으로는 대학생 증가 등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러한 역사적 조건들은 정치·사회·문화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단, 물질적·정신적 여유에 따라 사고범위가 확대되고 소비력이 증대된 집단, 현실을 비판할 수 있는 이론적 기준을 가진 집단 등의 정체성을 청년들에게 부여해 주었다(이혜림, 2002:30). 청년문화는 이러한 기성세대와는 다른 변화된 사회구조 속에서 등장한다는 점에서 보다 특징적인 모습을 드러낸다.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는 것은 사회의 변화가 주는 영향과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청년문화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보기에 앞서 사회 구조의 변화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1) 정치적 배경 - 독재정권과 학생의식의 성장

박정희 군사정권의 형성 이전 한국사회는 1960년 4·19를 겪으면서 대학생과 지식인 등이 사회 전반에 주요 세력으로 떠오르게 된다. 대학가를 중심으로 한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그 후에도 지속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정체성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청년들이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될 수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을 지니게 된다. 4·19 학생운동은 정치, 사회적인 영역으로 대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게 된 역사적 순간이었다는 점, 그리고 대학이라는 공간과 대학생이라는 주체의 사회적 역할을 규정하는 결정적인 동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4·19 직후 1961년 5월에 군사정변이 일어났고 정변 이후 군사정권의 독재로부터 비롯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대학생들은 다시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정부 역시 그러한 대학생들의 반응에 대해 철저하게 대처하였다. 결국 4·19 학생운동 이후의 일련의 사건들을 계기로 대학생들은 자신들이 발휘할 수 있는 정치적인 영향력을 현실 속에서 본격적으로 증명해 보였다. 나아가 실제로도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들로서의 위치를 정립하고 사회적으로 인식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정치, 사회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로서 정립된 대학생의 새로운 정체성은 4·19 학생운동에서부터 60년대 전반에 걸쳐 대학생들 내에서 일었던 사회참여에 대한 적극적인 의식들을 통해 생산된 결과였다. 사회참여를 추구하는 이와 같은 의식의 태동은 정치 영역을 넘어서서 사회의 전반적인 영역에 참여를 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로서 스스로를 위치 지우려는 움직임으로 확산되어 갔다.

4·19 학생운동을 계기로 60년대 전반에 걸쳐 대학생을 비롯한 대학사회는 사회의 전반적인 영역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주체로서 자리를 잡게 된다. 1960년대에 형성된 대학생들의 이와 같은 사회적인 정체성은 1970년대로까지 연장, 지속되어 70년대의 대학생은 정치, 사회적인 영향력을 일정하게 행사하는 집단으로서 규정되어 인식되고 있었다.

70년대 대학생은 사회적 변혁력과 영향력이 잠재된 집단이었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대학생 집단을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다. 청년에 대해 이처럼 경계하는 정부의 인식과 탄압은 ‘유신’이라는 새로운 통치체제가 성립되면서 더욱 강화되고 정당화되기에 이르렀다(이혜림, 2002).

이러한 독재정권의 등장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정체성을 지닌 집단을 양산해 내는 데에 오히려 기폭제가 되었고 대학생들을 주축으로 한 사회적 움직임은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는 데에도 일정한 영향을 줌으로써 청년이라는 주체가 나타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2) 경제적 배경 - 산업화와 경제성장

1962년부터 시작한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수행에 따라 한국 사회는 산업화를 진행해 나갔다. 산업화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경제 발전을 가져왔고 이는 개인적인 차원에도 영향을 주어 생활수준의 향상을 가져왔다. 향상된 생활수준은 개인에게 경제적인 여유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물질적, 정신적 여유를 누리게 된 개인의 삶은 생산 중심에서 소비 중심으로 전환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배경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수출주도의 고도성장 정책이 일정한 성과를 얻으면서 1970년대 들어서 한국 사회는 급속하게 대중사회의 성격을 띠게 된다. 산업 구조 면에서도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대도시로 집중되는 현상은 대중문화를 소비하는 공간이 확장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은 결국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개인적인 문제 외에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관심을 돌릴 수 있도록 해 주고 경제성장에 따른 여유 속에서 1970년대 청년들의 등장을 가능하게 해 준다. 그들은 경제적인 성장의 기반 속에서 어느 정도 소비 중심의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추었고 이는 기존의 청년층과는 구분되는 모습을 보이며 청년 계층이 대중문화의 중심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3) 사회적 배경 -교육제도의 변화와 대학 인구의 증가

70년대에 청년이 된 세대들은 교육의 의무화와 평준화의 수혜를 받은 초기 대상이었다. 정부가 교육을 통해 전문인력을 충당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1960년대 초부터 4년제 대학, 2년제 대학, 초급대학, 각종 전문학교 등을 비롯한 고등교육기관의 수량적인 증가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³ 이처럼 교육의 양적인 면의 발전으로 인해 청년들은 어릴 시절부터 기성세대와 비해서 큰 교육적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한국전쟁 이후부터 가열된 높은 교육열 덕분에 1960년대 말과 70년대의 대학 진학률이 증대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한국전쟁 이후, 생존경쟁 의식이 확대되고 그에 따라 사회이동 및 계층상승에 관한 욕구가 더불어

³ 4년제 대학의 경우, 1960년도의 92,676명이 68년도에 123,659명으로 증가하였고, 74년도에는 192,308명으로 60년도의 대학 인구에 비해 2배가 넘는 수준의 증가를 보였다(이혜림, 2002).

증대되면서 국민들의 교육열이 빠른 속도로 고조되었다. 1954~61년의 시기에 출생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베이비 붐 현상 역시 대학인구의 증가에 중요한 고려대상이 된다. 이 현상은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과급효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73년부터 대학에 입학하기 시작한 베이비 붐 세대로 인해 대학의 수용력과 대학으로의 진학률은 증대되고, 또 그에 따라서 대학 인구는 절대적인 수적 증가를 보이게 된다. 이러한 대학 인구의 증가는 잠정적으로 청년세대의 성장을 가져왔고 대학생으로 대변되는 청년들만의 특징적인 문화를 창출해내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3. 청년문화의 생성과 변화 양상

청년문화는 원래 1960-1970년대에 미국과 유럽을 휩쓴 진보적인 학생운동과 청년들의 저항운동 속에서 나타난 일련의 문화적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당시 구미의 청년들은 엄격한 청교도주의와 업적주의에 근거한 기존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기성세대와 지배 질서에 저항하면서 반전, 평화, 흑인 인권과 공동체의 회복을 주장했다. 그런 움직임은 신좌파의 이념을 추구한 학생운동에서 공동체의 회복을 주장하며 현실도피의 성향을 보인 히피이즘(hippieism)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양태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저항운동 속에서 청년문화가 번성하였는데 특히 많은 록 가수들과 포크 가수들이 이 운동에 동참하면서 풍부한 문화를 꽃피웠다. 1960년대 이래 군사정권에 의해 사회적 목표로 제시된 이른바 근대화의 내용은 경제적으로는 공업화, 문화적으로는 서구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급속한 근대화의 사회적 변화 속에서 성장한 당대의 청년세대가 서구 지향적 욕망을 갖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라 할 수 있다(김창남, 2003).

이러한 서구문화의 유입은 1970년대 초반 한국에 소개되면서 통기타 가요와 청바지, 장발, 생맥주 같은 문화를 유행시키게 된다. 당시 이러한 문화는 젊은이들의 정서를 사로잡았고 기성세대의 반발을 부르면서 청년문화는 논란 속에서도 생성되며 변화해 나간다.

1) 수용과 향유

1970년대 한국사회에서도 서구문화의 등장과 함께 근대화를 추진하는 사회 배경 속에서 성장한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였다. 이 세대는 기성세대와는 차이를 드러내는 대중 문화적 스타일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바로 청년문화로부터의 시작이다. 그러한 변화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인 대표적 예가 통기타 음악이며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20대 청년층을 기반으로 한 청년시장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이 새로운 시장의 중심주체는 대학생들이었고 이들은 고도성장기의 사회 변화 과정에서 상당 수준의 구매력을 확보한 새로운 소비주체들이었다. 이들은 생맥주를 마시고 청바지를 입고 통기타를 들고 노래를 부르며 음반을 구매함으로써 청년문화는 구체적 시장의 현상으로, 문화적 현상으로 대두하게 된다.

한국에서 형성된 청년문화는 통기타, 생맥주, 청바지, 장발 문화로 대변되는데 특히 통기타 음악을 수용하고 향유하는 모습을 통해 그 당시의 청년문화의 구체적인 특징들을 살펴볼 수 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음악감상실, YWCA, YMCA 등의 제한된 공간을 중심으로 소리 없이 번져나가던 통기타음악은 1971년에 들어서면서 몇 만장 단위의 빅히트 음반이 출현하기 시작하고 방송에서 새로운 스타가 떠오르면서 새로운 주류음악으로서 자리를 굳히게 된다. 대학생들은 일상적으로 기타를 배우게 되고 각 대학에는 아마추어 통기타 가수가 생기기 시작한다. 팝송과 통기타음악을 소개하는 음악잡지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대중음악출판은 양적으로 확대된다. 각 라디오 방송에는 젊은이들의 음악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경쟁적으로 생기고 TV에서도 통기타음악을 중점적으로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생겨난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성인 중심의 음악시장이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젊은이들을 위한 음악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면서 대중음악계는 양적, 질적으로 새로운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이다.

당시 트로트 외에 마땅한 음악이 없던 젊은 계층이 들을 수 있는 대안은 팝송과 외국민요였고 이러한 노래들을 대학가의 가수들이 한국의 통기타 음악으로 번안하여 부름으로써 이를 청년층이 향유하게 된 것이다. 1960년대 후반 한국 사회에 등장한 통기타 음악은 기성세대와는 다른 새로운 청년세대의 등장을 알리는 음악이었다. 기성세대와는 구분되는 역사적, 사회적 조건은 최초로 이 땅에 청년세대를 탄생시켰고 그들에 의해 새로운 음악이 탄생한 것이었다(김형찬 2002:124).

이와 같은 통기타 음악의 일상화와 함께 가요뿐 아니라 의상, 스타일, 코미디, 영화, 그리고 일상적 소비문화 등 대중문화 전반에서 드러나게 된다. 청바지와 장발이 유행하고 전통적 코미디나 만담과 구별되는 새로운 세대의 개그가 각광을 받았고 생맥주, 고고춤, 테니스 같은 서구적 생활문화가 인기를 끈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현상의 밑바탕에는 물론 문화의 근저에 일본적인 것에서 미국적인 것으로 심미적 기준이 바뀌어가는 사회적 과정이 깔려 있었지만 기성세대와는 구분되는 문화적인 차이가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통기타 가요 및 장발과 청바지는 단순히 서구적 스타일의 모방이라는 차원을 넘어 규격화된 스타일로 표현되는 기성의 문명과 질서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일탈과 자유의 욕망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문화를 수용하게 되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스타일의 창조와 변화 모습은 단순히 문화를 수용하고 향유하는 단계에서 머문 것이 아니다. 이처럼 청년문화를 수용하고 향유하는 모습은 능동적인 문화 생산자로서의 자질을 잠재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발전 단계로 해석할 수 있다.

2) 생산의 단계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통기타 음악이 확산될 수 있는 매체가 증가되고 매체의 보급 대수가 늘어나며 통기타 음악을 주로 취급하는 전용 프로그램과 시간대가 생기며 청취자들이 팬클럽까지 결성하여 자신들이 직접 가수들을 불러 모으는 적극적인 양상으로까지 전개된다.

청년문화의 확산과 함께 1970년대 유신체제 이후 청년문화를 퇴폐풍조와 외래문화라고 규정한 정부는 장발, 미니스커트, 고고장 단속과 같은 단속령을 시행한다(강준만, 2002:110).

박정희 군사정권 시기 매스미디어 보급과 함께 대중문화가 확산되면서 그에 대한 검열과 규제 장치도 함께 강화되었다. 영화윤리위원회, 방송윤리위원회, 예술윤리위원회 등의 이름을 가진 심의기구들이 만들어져 대중문화에 대한 사전검열을 시행했다. 대중문화에 대한 국가 권력의 개입과 검열은 유신체제로 접어들면서 좀 더 적극적이고 억압적으로 되어갔다. 유신체제를 통해 지배 구조의 물리적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민중 계층의 저항에 직면한 체제의 위기를 해결하고자 한 유신정권은 언론과 문화 전반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통해 이데올로기적 지배를 강화해갔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정부가 청년문화를 억압한 것은 결국 청년문화가 대중화되었고 그만큼 영향력이 확산되었음을 의미한다. 미국문화의 맹목적 수용과 모방에서 그 문화가 시작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수용하고 향유하면서 자유에 대한 시민의식이 상당해졌으며 한국 실정에 맞는 요소를 가미해서 새로운 문화의 흐름을 생산해냈다. 이는 문화의 수용자들이 문화를 향유하다가 생산해 내는 계층으로 변화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청년문화의 수용자들을 기존의 문화와는 구별되는 문화생산계층의 등장으로 볼 수 있다

통기타 음악의 확산은 단순한 대중음악의 향유가 아닌 ‘함께 노래 부르기’⁴라는 새로운 문화를 형성해낸다. 비록 외국에서 유입된 음악형태를 통해 통기타 음악은 수용되었지만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대학생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는 양식을 통해 음악을 즐기게 되었고 이는 단순한 수용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새로운 문화 양식을 생산해 낸 것을 의미한다. 청년세대의 일상적 문화로 자리 잡은 통기타 문화는 우리 대중문화사에서 대중이 단순한 문화소비자의 수준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문화 실천자로 모습을 드러낸 최초의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1970년대의 청년세대가 통기타를 매개로 집단적인 문화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에는 당시 통기타 음악의 가수들이 보여주었던 행태가 기성의 대중음악 스타들과는 여러모로 달랐다는 점도 중요한 요인이 된다. 당시의 통기타 가수들은 대부분 대학생 신분이었거나 팬들과 비슷한 연령층이었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무대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기성의 가수들과는 확연히 다른 것이었다. 그들은 보통의 대학생들처럼 청바지를 입고 수수한 차림으로 노래를 불렀으며 동세대의 대학생들은 기성의 ‘연예인’들과는 다른 그들의 아마추어리즘(amateurism)에 쉽게 동일시될 수 있었다. 이러한 아마추어리즘의 친근함은 청년문화가 형성될 수 있었던 중요

⁴ 김형찬(2002)에서 제시된 용어를 차용하여 연구자가 논의를 확장시켜 의미를 해석하고자 하였다.

한 요인들이다(김창남, 2004).

다음으로 살펴볼 생산적인 측면은 앞서 ‘함께 노래 부르기’와 같은 맥락에서 나타난 음악공간의 탄생이다. 1970년대에는 ‘췌시봉, 디체네, 뉴월드, 르네상스’ 등의 대형 음악감상실이 명동, 충무로, 서울의 도심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신현준 외, 2005:123). 이러한 음악감상실은 단순히 음악을 듣는 공간에 그치지 않고 당대의 새로운 문화를 갈망하는 청년들이 모여서 부대끼며 새로운 문화를 스스로 창출해 내었던 문화적 기지의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오늘날 논의되는 클럽문화와 연결 지을 수 있다(김형찬, 2004:165-166).

특히 ‘췌시봉’이 다른 음악감상실과 달리 독특한 젊은이 문화를 형성했던 것은 이곳에 직간접적으로 관계되었던 여러 문화계 인사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젊은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앞서 열거한 대학생들은 숙식을 같이하면서 몰려다녔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음악들을 서로에게 소개하거나 창작하면서 음악적 공동체와 유사한 성격을 띠었다.

세 번째로 라디오 방송을 통해 통기타 음악이 소개되면서 대중적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이는 젊은 계층만의 독특한 심야청취문화 형성을 통해 청년문화만의 특징을 드러내는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 1971년 이전에는 통기타 음악을 하는 젊은 가수들을 라디오 방송에 자주 출연시키는 프로그램의 신설 정도로 라디오가 통기타 음악의 확산에 기여했지만 1970년 말이 되면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야 DJ 프로의 확대로 양상이 변한다. 이러한 심야방송들은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게 해준다. 음악감상실이나 공연은 특별한 시간과 장소에 한정되고 인원이 제약되는 반면 심야방송을 통해서 각자가 매일 밤에 혼자 자신을 좋아하는 팝음악과 통기타 음악을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들의 진행으로 들으면서 청년문화의 정체성을 확인해나갔던 것이다.

진정으로 저항적이고 해방적인 문화적 실천은 소비적인 삶의 양식 자체에 저항하며 문화상품의 소비가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무언가 창조하고 생산해 내는 데서 기쁨과 의미를 찾는 일, 그리고 이와 아울러 이용 가능한 자원들을 이용해 대안적인 문화 형식들을 교환하는 일이다(이찬훈, 1998). 1970년대 청년문화는 처음부터 창조에서 시작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문화를 모방하고 소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그들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양산해내고 향유하는 방식에서 기존의 문화와는 큰 차이점을 드러낸다. 그 속에서 대학생들로 대변되는 청년층이 주축이 되어 하나의 흐름을 형성해 갔다는 것은 문화 생산자적인 측면도 함께 드러내게 된다는 점에서 한국 대중문화 형성의 하나의 분기점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4. 청년문화가 미친 영향

Ford&Dillard(1996)가 제시한 다원주의 문화연구(multicultural studies)의 개념모델에서는 일반적으로 하위 문화들의 복합체인 전체 사회에서 개인은 자신이 속해 있는 특정의 하위 문화의 영향을 받아 사회화 되는 경향

이 있음을 지적한다⁵. 현재의 문화가 다양한 모습으로 양산되고 일정한 스타일을 만들어내고 특징적인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특정한 문화의 영향에서 파생되어 시작된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청년문화는 문화 생산 계층으로서 뒤이어 나타나는 10대, 20대가 젊은 계층이 주도하게 되는 문화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1970년대의 사회 변화와 함께 형성된 청년문화는 서구문화의 영향의 기반 하에 이루어졌지만 기성세대의 문화와는 대비되고 그것을 수용하고 향유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새로운 조류를 형성한다. 또한 한국사회에 젊은 계층을 중심으로 한 문화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문화 생산 계층으로서의 모습을 나타낸다. 통기타 문화와 함께 양산된 당대의 청년들이 만들어낸 장발과 청바지 문화는 단순한 모방이 아닌 한국 사회에서 대학생으로 상징되는 청년 계층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형성했다는 점에서 그 후에 한국사회에 등장하는 하위문화의 다양한 모습과 연결 지을 수 있다.

1970년대의 청년문화는 주로 라디오를 통해 음악을 수용했고 그것도 주로 미국의 대중음악을 청취했다고 할 수 있다(김영주, 2006). 이러한 시각에서는 다소 한계점도 있지만 이후 텔레비전이 청소년들을 상대로 하여 국내 대중음악을 다룬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했고 이것이 1980년대 이후 청소년들을 국내 대중음악의 주요 수용자 층으로 떠오르게 한 것(박용규, 2007)은 청년문화가 기성세대와 구분되는 감상의 형식을 만들어 낸 것에서 기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까지 정치 사회적 상황이 극단적 억압과 대립으로 치달으면서 청년문화는 대학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강한 정치성을 드러내기도 하고 독재정권과는 반대되는 저항적인 움직임을 내재한 모습으로 대학생만의 문화적 테두리를 경계 짓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흐름은 8~90년대에 들어 청소년이 새로운 문화 소비자 집단으로 등장하는 데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끼친다. 이는 이후 문화 향유 계층의 다양한 등장과도 무관하지 않다.

청년을 중심으로 한 문화는 90년대에 들어서 급속도로 신세대 청소년층에게 넘어가는데 이것이 신세대 문화로 이어지는 연결선상에 있다는 점에서 청년문화는 한국의 대중문화의 흐름 속에서 주목할 만한 기준점이 되었다. 이는 문화 생산 계층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1990년대 들어 등장한 신세대와 청소년 문화, 서태지 신드롬, 스타일을 통한 저항 등은 문화적 진보의 개념이 더욱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펼쳐지는 모습을 보여준다(김창남, 2003). 이는 청년문화를 기점으로 이러한 하위문화가 다양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⁵ 박광민(1999), p.90에 제시된 부분을 재인용하였다.

1970년대 문화는 대학생이라는 계층의 등장과 그 계층이 문화를 주도해 나가는 주요세력이 되었고 기성세대와 구분되는 저항적 움직임을 나타내며 청년이라는 계층을 중심으로 일정한 문화적 조류를 형성했다. 이는 한국사회의 문화를 주도하는 계층이 성인에서 학생으로 변모함을 드러내주는 지점이면서 그 후 신세대 문화나 아이돌 문화로 대변되는 청소년 문화의 형성에 영향력을 미쳤다는 데에서 문화적 특수성을 드러낸다.

5. 결론

지금까지 1970년대에 형성된 청년문화의 흐름을 조명해 봄으로써 그 속에서 대학생으로 대표되는 청년 계층이 기존의 문화와 어떠한 차이를 드러내고 문화생산계층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어떠한 의의를 지니는지를 고찰해 보았다.

본 연구는 청년문화가 문화의 주체이자 한국문화에 큰 획을 그었다는 거대한 담론을 형성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초반의 연구는 청년문화를 통해 현재 한국대중문화 속에 문화 생산 주체가 없음을 지적하고 청년문화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⁶는 다소 큰 관점으로 진행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청년문화가 현재의 대중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대안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한국 대중문화의 흐름 속에서 1970년대 등장한 청년문화를 고찰한 것이다.

한국사회에 하나의 문화 조류가 형성되면서 청년, 혹은 학생으로 이야기되는 계층의 문화가 언제부터 발생했는지를 살펴보고 이와 이어지는 맥락에서 그 후에 나타나는 하위문화들과의 연관 관계를 찾아보는 것이 더 큰 논지를 차지한다. 이러한 면에서 1970년대에 등장한 청년문화는 그 당시 사회적 맥락에서 기성세대와는 분명한 차이점을 지닌다. 기존의 성인 계층과는 구분되게 학생 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문화를 수용했다. 또한 향유하는 과정에서 문화 생산자적인 측면을 지닌 대학생이라는 계층이 문화를 주도하는 세력으로 처음 등장한 것이다. 이는 현재의 한국 대중문화의 흐름을 읽는 데에도 의미 있는 과정이 된다.

이번 연구에서는 청년문화에 대한 기존 논의를 중심으로 하여 살펴봄으로써 1970년대 청년문화의 특징적인 부분을 현재 대중문화와의 특징과 관련시켜 자세히 서술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청년문화에 대한 고찰을 통해 1970년대에 형성된 문화의 흐름 속에서 현재의 대중문화를 연결 지으려 하였고 문화생산계층이라는 측면에서 청년문화를 다루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⁶ 김창남(2004)은 ‘청년’의 의미는 ‘대안을 꿈꾸는 정신’에 있다고 보고 청년문화가 현재 대중문화에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참고문헌>

- 고길섭(1999), 「 청년문화, 혹은 소수문화론적 연구에 대하여 」, 『 문화과학 』 Vol.20, 문화과학사.
- 김창남(1997), 「 대중의 시대, 대중문화의 시대 」, 『 민족음악의 이해 』 Vol.6, 민족음악연구회.
- 김창남, (2007), 「 한국 대중음악사의 새로운 모색과 전망 ; 민중가요의 대중음악사적 의의 」, 『 민족문화문집 』 Vol.35,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김형찬(2002), 「 한국 초기 통기타음악의 사적 연구:1975년 사회사적 흐름과 작가를 중심으로 」,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 김형찬(2004) 「 1970년대 통기타 음악과 청년문화의 인프라 」, 김창남(편), 『대중 음악과 노래운동 그리고 청년문화』, 159~192. 서울:한울.
- 박광민(1999), 「 문화 생산자의 시각에서 본 청소년 문화 」, 『 리서치 아카데미 논총 』,Vol.2. 명지대학교 리서치아카데미.
- 이동연(2012), 「 문화연구와 해석의 정치 」, 『 문화과학 』 Vol.72, 문화과학사.
- 이동연(2004), 「 대중음악 개혁운동과 수용자운동의 평가와 전망 」, 김창남(편). 『대중 음악과 노래운동 그리고 청년문화』, 159~192. 서울: 한울.
- 이찬훈(1998), 「 대중문화와 헤게모니 」, 『 철학논보 』 Vol.15, 새한철학회.
- 이혜림(2005), 「 1970년대 청년문화구성체의 역사적 형성과정 - 대중음악의 소비양상을 중심으로 」, 『 사회연구 』 Vol.10, 한국사회조사연구소.
- 이혜림(2002), 「 1970년대 청년 문화구성체의 역사적 형성과정: 대중음악의 소비양상을 중심으로 」, 서강대학교 대학원
- 주창윤(2006), 「 1970년대 청년문화 세대담론의 정치학 」, 『 언론과 사회 』 Vol.14, 성곡언론문화재단.
- 강준만 (1999), 『 대중문화의 겉과 속 』, 인물과 사상사.
- 김영주(2006), 『한국의 청년 대중음악 문화』, 서울 : 한국학술정보.
- 김창남 (2003), 『 대중문화의 이해 』, 한울 아카데미.
- 김창남 편(2004), 『 대중음악과 노래운동, 그리고 청년문화 』, 한울 아카데미.

Kim, Ji-sun

This study is Korea youth culture in the 1970s. Also, the youth culture are investigated focus on culture productive. The current of popular culture consumption subjects are 10 and 20 layer as young teenagers and college students rather than adult layer. The youth class when began to appear on the front of popular culture based on the historical review and looks at the process youth appears as cultural production layers.

The characteristics of such a youth culture find out significance associated with the current popular culture. 1970s appeared in the Korea youth culture combine with the pro-democracy movement in college community, lead to the anti-institutional, resistant culture. In this background, the youth culture completed and one of cultural boundary made their own unique style in that reveals the characteristics of cultural producers.

In this respect, 1970s the youth culture in Korea popular culture have been the turning point in formation of particular culture with focus on young people. After that, it leads to 80's, 90's popular culture such as 'New generation culture', 'Idol culture'. It becomes the starting point of the sub-culture formation and has significant in that point.

Keywords : 1970s Korea youth culture, Popular culture, Cultural production layers.